

상담에서 '숙제순응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강혜영(康兮瑛)* · 이재규(李在珪)**

논문 요약

상담에서 숙제주기는 상담실제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담기법이다. 이는 내담자에게 숙제를 주는 것이 상담과정과 상담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의 숙제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며 숙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상담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담에서 내담자의 숙제 수행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며 이는 '숙제순응도'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숙제순응도 연구가 상담실제에 주는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숙제순응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상담실제 측면에서 숙제주기 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숙제순응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상담성과에 영향 미치는가'하는 것이다.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숙제수행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숙제수행에 관련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은 크게 내담자 변인, 상담자 변인, 기술적(치료과정) 변인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기술적(치료과정) 변인에 속하는 숙제부여방법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숙제순응도, 상담숙제, 상담기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I. 시작하는 말

‘숙제(homework)’란 사전적인 의미로 ‘집에서 해결해 오도록 내주는 과제’(국립국어연구원, 1999)를 뜻한다. 상담에서 부여되는 숙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와 같은 뜻을 지닌다. Shelton과 Ackerman(1974)은 숙제를 ‘치료(상담)시간 밖에서 행하도록 내담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정의는 숙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Christopher & Richard, 1998).

그러나 ‘숙제’라는 용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숙제’이외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어왔다. 예를들어, Lazarus(1995)는 ‘숙제(homework)’라는 용어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연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신 ‘힘을 북돋우는 과제(empowering assig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안 하였다. Whiman과 Jacobson(1990)도 ‘숙제’라는 용어 대신 ‘회기 간 과제(between-session task)’라는 용어의 사용을 추천하였다(Christopher & Richard, 1998 재인용).

본 논문의 초두에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 것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 가운데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숙제’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용어가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이다. ‘숙제’하면 학교장면에서의 숙제를 연상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용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담실제에서 내담자와 숙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 할 때 상담자가 유념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숙제’라는 용어 사용의 재고는 상담연구에서 보다는 상담실제에서 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과제’라는 용어는 상담시간 외에 내담자로 하여금 해보도록 하는 활동뿐 아니라 상담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과제’라고 하였을 때 상담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인지, 상담시간 외에 해보도록 부과된 활동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Shelton과 Ackerman(1974)의 정의에 근거하여 ‘상담(치료) 회기 밖에서 상담자없이 내담자 혼자서 실행해 보도록 부여된 과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담에서 숙제주기는 상담실제에서 많은 상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담기법이다. 인지행동치료, 해결중심적 단기상담, 전략적 가족치료 등에서처럼 숙제주기가 치료의 중요한 개입 전략으로 간주되는 상담접근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접근을 취하는 많은 상담자들

역시 상담실제에서 숙제주기를 활용하고 있다(강혜영 · 김계현, 2004; Martin & Worthington, 1982; Rosenthal, 2001; Williams, 2002).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숙제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는데, 이는 상담과정 측면에서의 이점과 상담성과 측면에서의 이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담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일상의 자연스런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전이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고, 내담자에게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둠으로써 상담 시간을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김계현, 1990, 1993; Beck,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 Engle, Beutler, & Daldrup, 1991; Hare-Mustin & Tushup, 1977; Kornblith, Rehm, O'Hara, & Lamparski, 1983; Shelton & Ackerman, 1974; Suinn, 1990).

또한, 숙제주기는 상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인지치료에서 숙제부여 여부에 따라 치료효과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숙제가 부여되었을 경우, 우울증상이 더 많이 호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Neimeyer & Feixas, 1990; Neimeyer, Twentyman, & Prezant, 1985; Persons & Burns, 1985). 또한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숙제부여와 상담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숙제를 부여하는 경우, 치료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Kazantzis, Deane, & Ronan, 200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숙제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숙제의 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담자가 부여한 숙제를 내담자가 해오지 않을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숙제부여의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내담자의 숙제 수행 문제는 상담실천가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며, 상담에서는 이를 숙제순응도(homework compliance)라는 개념으로 연구하여 왔다.

순응은 영어의 'compliance'의 번역어로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Haynes(1979)는 '의학적 혹은 건강과 관련된 조언에 따르는 한 사람의 행동의 정도'라고 하였고, Daley와 Zuckoff(1999)는 '환자나 내담자가 치료계획에 따르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숙제순응도(homework compliance)는 상담자가 부여한 숙제를 실제로 해오는지 하는 숙제수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박기환, 1999; Primakoff, Epstein, & Covi, 1986). 즉, 숙제수행이라는 행동적 측면이 부각된 개념이다.

국내의 상담실제 측면을 보았을 때, 숙제주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연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제주기 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기초 연구가 되는 숙제순응도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숙제순응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상담실제 측면에서 숙제주기 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숙제

순응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숙제순응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내담자들의 숙제 수행이 상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의 숙제수행이 상담성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라면 숙제부여 시, 내담자들의 숙제 수행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숙제수행과 관련된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숙제수행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로 숙제수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숙제순응도 관련 변인 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선행 숙제순응도 연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향후 이루어질 연구들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Ⅱ. 숙제순응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들을 제시하였고, 'Ⅲ.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와 향후과제'에서는 셋째 질문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Ⅱ. 숙제순응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구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는 내담자의 숙제수행에 따라 상담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숙제수행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 연구', '숙제순응도 관련 변인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숙제순응도와 상담성과 연구

숙제의 효과는 내담자들이 숙제를 수행하는 것, 즉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전제로 할 때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숙제순응에 따른 상담성과에서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Persons와 Burns(1985)는 우울증으로 인지치료를 받으러 온 외래환자들을 숙제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으로 양분하여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숙제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숙제를 한 환자들보다 치료 종결 시 유의미하게 더 우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erson, Burns, 그리고 Perloff(1988)는 개인병원에서의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

숙제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매 회기 나눠주는 숙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한 환자는 숙제를 규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3배나 더 호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울증 이외의 다른 문제에서도 숙제수행과 치료성과와의 관계는 지지되고 있다. Burns와 Nolen-Hoeksema(1991)는 정서장애 환자의 인지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담자의 숙제수행이 증상의 호전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Edelman과 Chambless(1993)는 광장공포증 내담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지시에 대한 수행과 치료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숙제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인 내담자는 그렇지 않은 내담자보다 공포에 대한 공포(fear of fear) 측정치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감소를 보였고, 회피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를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사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치료에서의 숙제수행과 치료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Hope, Herbert, 그리고 Bellack(1991)도 치료과정에서 숙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환자들보다 덜 수행한 환자들보다 더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환자들의 숙제수행과 치료효과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숙제수행을 치료시기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연구들이다. 다시 말해, 치료 종결 시에 전체적으로 숙제수행을 평가하여 이것과 치료효과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치료시기 중, 어느 시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더 관계가 많은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Laguna, Hope, 그리고 Herbert(1994)는 치료의 첫 2/3시기의 숙제수행은 치료효과와 상관성이 있지만, 치료후기의 숙제수행은 치료효과와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치료의 마지막 시기에 수행된 숙제의 효과는 치료가 끝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delman과 Chambless(1995)은 Laguna 등(1994)의 제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사회공포증 환자의 숙제수행도와 치료효과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숙제수행은 치료 종결 시 결과측정치와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결과측정치와는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치료과정에서 숙제를 보다 잘 수행했던 내담자는 발표불안을 더 적게 보고하였고, 회피행동의 변화도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숙제수행의 효과는 치료가 끝난 상황, 즉 더 이상 치료자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Leung과 Heimberger(1996)도 사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치료에서 숙제수행과 치료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치료 초기와 후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내담자(환자)의 숙제순응도는 치료효과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표 1). 그런데 이들 연구는 모두 인지행동치료에서 수행된 것이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숙제를 부여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한 치료적 과정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치료에서의 숙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숙제부여는 인지행동치료적 접근 이외의 다른 접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개입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치료적 접근 이외의 다른 접근에서 숙제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상담의 다양한 접근 및 문제영역에 대해서도 숙제부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표 1> 숙제수행여부에 따른 상담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연구자	숙제부여 대상	연구결과
Persons & Burns(1985)	우울증 환자	숙제 비수행 환자들의 우울 > 숙제 수행 환자들의 우울
Person, Burns, & Perloff(1988)	우울증 환자	자발적 숙제수행 환자의 호전 > 숙제 수행 환자들의 호전
Burns & Nolen-Hoeksema(1991)	정서장애환자	숙제수행이 증상의 호전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Edelman & Chambless(1993)	광장공포증 내담자	공포감소 및 회피행동의 호전에서, 숙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내담자 > 숙제에 시간을 덜 들인 내담자
Hope, Herbert, & Bellack(1991)	사회공포증 환자	숙제를 성실히 수행한 환자의 호전 >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환자의 호전
Edelman과 Chambless(1995)	사회공포증 환자	치료종결 시 결과측정치는 숙제수행여부에 따라 차이 없었으나, 6개월 후 추수평가 시 결과측정치에는 차이 나타남
Leung과 Heimberger(1996)	사회공포증 환자	치료초기와 후기의 숙제수행이 치료효과와 관련되어 있음

2. 숙제순응도 관련 변인 연구

내담자들의 숙제순응도를 증가시키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Worthington(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지역상담센터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내담자들의 숙제수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변인은 크게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상담자 변인에는 전반적인 상담자 능력, 특정 상담기술이 포함되었고, 내담자 변인에는 초기 문제의 심각도, 조기종결 및 호소문제의 종류(진로문제, 개인-정서문제), 숙제를 하겠다는 직접적인 증언이 포함되었으며, 치료과정 변인에는 숙제가 제시된 상담의 단계(초기, 중기, 종결기), 부여한 숙제의 양, 부과된 숙제의 타입, 내담자의 순응 경험과 상담자의 숙제부여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중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예언해주는 변인에는 치료과정 변인에 속하는, 숙제가 제시된 시기(상담의 초기에 주어진 과제), 내담자의 순응 경험(순응한 경험이 있

는 내담자), 상담자의 숙제부여방법(숙제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를 체크하는 것, 상담자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 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 숙제수행을 예언해주는 변인으로서 치료과정 변인이 내담자 변인이나 상담자 변인보다 더 강력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Worthington(1986)이 기술연구를 통해 숙제순응도 관련 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면, Yankura(1986)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숙제순응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는 '치료자 또는 치료' 변인과 '내담자'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자에는 지각된 전문성 수준(높고 낮음), 부여된 숙제에 대한 상담자의 추후 검토(검토 안함, 검토함, 숙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검토함) 두 개의 요인이 포함되었고, 후자에는 내담자의 사회불안(높고 낮음) 한 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요인들 중, 상담자의 숙제에 대한 추후 검토만이 수행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성 수준과 내담자 문제의 심각도는 숙제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Lancaster(1990)는 숙제수행도 변인을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적 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에 속하는 요인으로 상담자의 스타일(지시적, 비지시적),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수준, 숙제부여방법(말로만 제시,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이 상담자 평정, 2회기 참여율, 숙제수행 비율, 완성된 숙제의 질, 의사소통기술 획득, 훈련회기에 대한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숙제수행 비율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숙제수행 비율은 상담자의 스타일과 내담자의 심리적 저항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숙제부여방법(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yant, Simons, 그리고 Thase(1999)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치료에서 숙제수행도에 미치는 환자 변인과 치료자 기술변인을 살펴보았다. 인구학적·심리적 환자 변인에는 연령, 교육, 이전의 우울증 에피소드 수, 우울의 정도, 학습된 자원의 풍부성이 포함되었고, 치료자 기술에는 일반적 치료기술, 인지치료-관련기술, 숙제에 국한된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숙제수행도는 이전의 숙제 검토, 일반적 치료기술에 의해 가장 잘 예언되었다. 반면 환자의 연령, 교육, 우울정도, 학습된 자원의 풍부성은 숙제수행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Worthington(1986), Yankura(1986), Lancaster(199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자나 내담자(환자)변인보다 숙제부여방법과 같은 기술 변인이 숙제수행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Worthington(1986), Yankura(1986), Lancaster(1990), Bryant등(1999)을 통해 숙제순응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표 2). 요약하면, 이러한 변인들은 크게 내담자 변인, 상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기술적 변인)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숙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와 관련된 치료과정 변인(기술적 변인)이 숙제순응도를 예

언해주는 강력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숙제수행도 증가와 관련된 숙제부여방법은 ① 상담자가 숙제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를 체크하는 것, 상담자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Worthington, 1986), ② 상담자가 추후에 숙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Yankura, 1986; Bryant et al., 1999), ③ 숙제를 제시할 때 말 뿐 아니라 문서양식도 함께 제시하는 것(Lancaster, 1990)등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숙제순응도 증가 변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숙제부여방법만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연구한 것은 아니었고, 이는 연구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 중 하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변인들 중, 숙제부여방법이 숙제순응도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면 이후의 연구는 숙제부여방법에 초점을 두어 효과적인 숙제부여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숙제순응도 증가 요인 가운데 숙제부여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따로 묶어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숙제수행 증가 관련 변인을 분석한 연구들

연구자	관련 변인	숙제수행 증가에 효과적인 변인
Worthington(1986)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과정 변인	치료과정 변인(숙제제시 시기, 내담자의 순응 경험, 숙제부여방법)
Yankura(1986)	치료자(치료) 변인, 내담자 변인	치료자(치료) 변인(상담자의 숙제에 대한 추후 검토)
Lancaster(1990)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적 변인	기술적 변인(숙제부여방법)
Bryant, Simons, & Thase(1999)	환자 변인, 치료자 기술 변인	치료자 기술 변인(이전의 숙제 검토, 일반적 치료기술)

3. 숙제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상담장면 이외에 실제로 숙제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일반 학습장면이다. 일반 학습장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숙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 학습장면에서의 숙제수행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학교-가정간 노트(school-home notes) 활용하는 방법, 행동수정의 방법 중 반응넷가(response cost)를 활용하는 방법, 자기-지시 훈련(self-instruction training),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 training program)들이 학생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Miller & Kelley, 1994에서 재인용). 여기서 보면,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숙제부여방법을 활용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개입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학습장면에서는 숙제부여의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차이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차이는 숙제가 부여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일반 학습장면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숙제수행이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숙제를 해오지 않게 되면, 학업 성적에 반영되어 성적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학교생활 평가에서 책임감 없는 학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담에서 부여되는 숙제는 이러한 평가의 성격이 약하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내 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해도 내담자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일반 학습장면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 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 내담자에게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상담에서는 숙제수행 자체보다는 상담자와의 관계가 더욱 상담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숙제를 수행하기 위한 벌이나 제재가 오히려 상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상담진행 및 성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기술적인 방법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발적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 살펴볼 숙제부여방법들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예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에서 숙제를 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내주는 것이 숙제순응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가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크게 숙제제시의 타당성(rationale) 제시하는 방법과 숙제를 기록해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숙제제시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법

많은 임상가들은 숙제를 부여할 때 타당성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Goldfried와 Davison(1976)은 숙제와 같은 치료적 과제를 부여함에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이 숙제가 타당하고 믿을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숙제가 내담자의 치료목표와 어떤 관련이 되는지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Beck 등(1979)은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담자가 이 기법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숙제부여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전략이 숙제순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치료자 행동임을 강조하였다. Jacobson과 Margolin(1979)도 결혼상담에서 부부들에게 숙제를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당성 제시라고 지적하면서 이 숙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납득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Martin과 Worthington(1982)은 '행동적 숙제(behavioral homework)'라는 논문에서 숙제사

용에 대한 3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 타당성 제시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부여할 숙제를 고안하는 단계(1단계: devise), 숙제를 부여하는 단계(2단계: present), 숙제수행을 점검하는 단계(3단계: monitor)로 구분하고, 2단계인 숙제부여 단계에서 타당성 제시에 대해 설명하였다. 타당성 설명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 설명(general rationale)방식과 구체적 설명(specific rationale)방식이다. 일반적 설명이란 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숙제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심리치료에서 왜 숙제를 내주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내담자가 숙제를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숙제를 한다면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체적 설명이란 특정한 숙제를 내줄 때 하는 설명으로 이 숙제가 상담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이 특정 숙제와 치료목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이 숙제를 수행하면 유용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Cormier와 Cormier(1985) 역시 숙제주기는 숙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납득시키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고, Kirk(1989)도 내담자가 숙제의 타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Wells(1994)도 숙제를 줄 때, 숙제 주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Kazantzis와 Lampropoulos(2002)도 숙제줄 때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타당성 제시임을 강조하였다. Garland와 Scott(2002) 역시 우울증 환자 상담에서 숙제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자들의 숙제 비수행 이유 중의 하나가 숙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숙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임상가들은 숙제부여과정에서 타당성 제시가 내담자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임상적으로는 타당성 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타당성 제시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타당성 제시와 치료효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로 타당성을 제시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치료효과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타당성 제시와 처치수용도와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로 어떤 처치를 할 때, 그 처치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처치수용도를 높이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타당성 제시와 치료효과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의 하나로 Parrino(1971)는 심리치료에서 치료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제공이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뱀 공포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행동수정치료법(체계적 둔감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치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치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란 어떤 치료인지, 왜 이러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타당성 제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연구결과, 치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치료성적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치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켜 치료를 촉진시켰다고 결론지었다.

Girodo와 Wood(1979)는 스트레스 면역법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제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대처방법으로서 자기-언어(self-statement)가 효과 있다는 설명을 받은 피험자들이, 그런 설명 없이 훈련 받은 피험자들에 비해 자기-언어를 더 잘 수행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상담자 개입에 대한 사전 설명 제시가 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일으킴으로써 자기-언어 훈련의 효과를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즉, 내담자에게 어떤 개입을 할 때, 그 개입에 대한 설명과 개입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야기 해주지 않는 것보다 그 개입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돕고, 나아가 치료 효과도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를 내주는 이유 및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설명하지 않는 경우보다 숙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고, 나아가 숙제수행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타당성 제시방법과 처치수용도(treatment acceptability)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타당성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Bishop, 1990; Zimmerman, 1992). Bishop(1990)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ismatched rationale),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no rationale)에 있어서 처치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matched rationale)이 부합하지 않은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mismatched rationale)($p<.01$)이나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no rationale)($p<.05$)보다 더 높은 처치수용도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mismatched rationale)과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집단(no rationale)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23$). 이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처치수용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기 보다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맞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Zimmerman(199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Zimmerman(1992)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간에 처치수용도와

수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처치수용도에서는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가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제시받은 경우(standard rationale)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Bishop(1990)의 연구에서처럼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matched rationale)가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standard rationale)보다 처치수용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타당성 제시여부와 치료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숙제 부여 과정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숙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하여 숙제수행을 높일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 제시와 처치수용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 보다는 타당성이 내담자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담자의 신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타당성이어야 숙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하여 숙제수행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타당성제시가 숙제수용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타당성 제시 여부와 숙제수용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으로 타당성 제시여부와 숙제수용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강혜영(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혜영(200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워크숍 장면에서 타당성제시 여부에 따라 숙제수용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한 숙제는 '진로대차대조표 만들기'였는데,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은 이러한 숙제를 내주는 목적 및 필요성, 숙제 수행의 효과를 설명 받은 집단이고, 타당성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은 이러한 설명 대신 과제실시의 일반적인 유의점을 설명 받은 집단이었다. 실험결과, 타당성을 제시받은 집단과 제시받지 않은 집단 간에 숙제수용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었는데, 워크숍 과정에서 이미 숙제수행 동기가 이미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천정효과로 인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숙제 자체가 지닌 매력도가 수행동기 및 수행도를 높였을 것이라는 점, 집단적으로 타당성이 제시된 상황이라 타당성 제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연구대상자가 지적으로 매우 우수한 집단이라는 점이 타당성 제시의 효과를 약화시켰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2) 숙제를 기록해주는 방법

숙제수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논의되어 왔던 또 다른 숙제제시 방법은 숙제를 말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숙제부여라는 상담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의 숙제수행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역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였다.

Rose(1973)는 행동적 숙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기억을 상기시킬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는 내담자가 숙제를 정확히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숙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든 큐 카드 제시 방법을 제안하였다.

Jacobson과 Margolin(1979)은 결혼상담에서 부부들에게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① 무엇을 해야하는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얼마나 ⑤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⑥ 다음 치료회기에 갖고 오도록 기억하게 할 요소(reminder)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여섯 번째 제안은 내담자들이 숙제를 잊고 해오지 않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Christopher와 Richard(1998)는 상담에서 숙제사용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면서 내담자(환자)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① 상담에 오는 이유가 변화를 원하기보다 감정을 순화하고 공감 얻을 친구를 갖고 싶은 경우 ② 상담자가 어떤 마술적 힘을 발휘하여 변화를 일으켜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많고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 ③ 자발적인 의사로 상담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거나 반항적인 내담자의 경우 ④ 내담자가 숙제를 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⑤ 숙제지시가 불분명하거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⑥ 내담자들이 숙제 해온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밀관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④번과 ⑤번의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숙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숙제 비수행의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숙제지시가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 '숙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Christopher & Richard, 1998; Jacobson & Margolin, 1979; Rose, 1973).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숙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숙제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Rose(1973), Jacobson과 Margolin(1979) 등이 제안한 것처럼 숙제를 기억할 수 있는 요소(reminder)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 숙제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제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 제안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몇 개에 불과하다. Cox 등(1988)의 연구와 Lancaster(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의료장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모의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Cox 등(1988)은 의료장면에서 환자들의 숙제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 숙제 지시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성인 외래환자들에게 행동적 숙제를 부과함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처방했을 때(verbal assignment)와 글로 써서 처방했을 때

(written assignment)로 나누어 이러한 지시 방법이 환자의 숙제 회상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글로 써서 처방한 것은 일종의 메모장을 제시한 것인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에 숙제를 적어준 것이다. 연구결과, 글로 쓴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숙제 회상비율과 숙제수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소통의 효과, 기억 효과, 숙제중요도 인식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숙제를 기록해 줌으로써 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에 기록한 것을 보고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것이 중요한 숙제구나 하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제수행을 높였다는 것이다.

Lancaster(1990)는 Cox 등(1988)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상담장면에서의 문서양식(written reminder)제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는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기술적 변인으로 나누어 이 가운데 기술적 변인의 하나로 숙제부여방법(말로만 제시,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말과 문서양식을 함께 제시받은 경우에 숙제수행 비율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Lancaster(1990)연구에서 사용된 문서양식(written reminder)은 앞서 살펴본 Cox 등(1988)이 사용한 글로 써서 한 처방(written assignment)과 다른 점이 있다. Cox 등(1988)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숙제를 기록해 준 것이었고, Lancaster(1990)는 숙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양식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에서 부여된 숙제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 5개를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느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내용으로 적어오는 것이었다.

최근 강혜영(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워크숍 장면에서 문서양식 제시여부에 따른 숙제순응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서양식이란 진로대차대조표가 그려져 있는 활동지(work sheet)를 가리킨다. 연구결과, 다음 주까지 해 와야 하는 숙제를 부여할 때 이러한 문서양식을 제공받은 집단이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숙제수행에 대한 태도와 실제 숙제 수행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숙제를 제시할 때 숙제의 내용을 적어주는 것, 숙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볼 때, 문서양식의 제시는 숙제수행을 높이는 요인이며 구체적인 문서양식은 숙제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Cox 등(1988)에서처럼 행동 숙제(behavior homework)의 경우는 알림장 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Lancaster(1990), 강혜영(2005)에서처럼 기록 숙제(written homework)의 경우는 기록 문서양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서양식 제시가 숙제수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경험적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미흡한 상태이며 보다 많은 실증적 자료들이 필요하다. 또한 최

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숙제부여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기 등을 통한 숙제주기 및 숙제확인 방법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상담에서 숙제순응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지니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향후 숙제순응도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및 향후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III.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와 향후과제

숙제순응도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숙제순응도의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하는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제수행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는가 하는 판단기준에 대한 것이며, 끝으로 순응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측정방법에 대한 것이다(Kazantzis & Lampropoulos, 2002; Primakoff et al., 1986).

첫째,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숙제순응도와 관련된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모의실험방법을 통하여 얻은 연구(예: Lancaster, 1990), 상담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한 연구(예: Conoley, Padula, Payton, & Daniels, 1994), 그리고 실제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의 숙제수행 자료를 얻은 연구 등이다(예: Cox et al., 1988; Worthington, 1986).

모의상담방법으로 숙제수행 자료를 수집한 Lancaster(1990)는 수업시간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숙제를 내준 뒤, 1주일 후 숙제수행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기말에 보너스 점수(5점)를 주었다. 물론 이 점수는 숙제수행자들에게만 준 것은 아니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부여는 숙제수행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구 참여라는 것이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항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숙제순응도를 모의상담방법으로 연구할 때는 연구참여자의 동기가 숙제순응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실제 장면과 유사한 조건에서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순응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하여 숙제순응도를 살펴본 Conoley, Padula, Payton, 그리고

Daniels(1994)에서는 상담자의 지시에 대한 내담자 수행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는데, 7명의 평정자들이 보관되어 있던 상담회기 녹화 비디오테이프를 평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상담실제에서 나타난 순응도를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외적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특정 변인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제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의 숙제순응도 자료를 얻은 연구들(예: Cox et al., 1988; Worthington, 1986) 역시 앞서 살펴본 상담 비디오테이프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외적타당도는 높일 수 있으나 변인의 통제는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상의 자료수집 방법을 종합해보면, 실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장면에서의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의상담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실제에 가까운 조건을 만들어 제 3의 변인이 영향 미칠 가능성을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혜영(2005)의 연구는 숙제순응도 자료를 얻음에 있어서 수업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실제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2회의 진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동기화시킴으로써 수업시간이라는 상황이 참여자들의 숙제순응 동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자료수집 문제점을 보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대학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또 다른 제한점을 지닌다. 앞으로는 미리 계획된 차별화된 처치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실시해보는 현장실험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숙제수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담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것이고(예: Cox et al., 1988),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예: Lancaster, 1990). 내담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숙제를 했는가라고 질문하여 그의 대답을 근거로 숙제수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Primakoff et al., 1986).

한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숙제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이는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추천되는 방법이지만 숙제의 내용에 따라 어떤 숙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자신의 어릴 때 꿈 적어오기'와 같은 기록 숙제(written homework)는 내담자가 기록해온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에 오락하는 시간 30분 줄이기'와 같은 행동 숙제(behavior homework)는 직접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내담자가 숙제를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할지 여

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숙제순응도를 연구할 때, 연구자는 미리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숙제수행여부를 결정할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숙제순응도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숙제수행여부, 즉 숙제를 해 온 경우와 해오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다(예: Cox et al., 1988). 이러한 방법은 숙제순응도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고, 순응도를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순응도의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행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Primakoff 등(1986)은 숙제수행의 정도에 점수매기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숙제를 평정할 수 있는 기준 1-6점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평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부록 1). 순응이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분법적 의미보다는 완전히 순응한 것에서부터 전혀 순응하지 않은 것에 이르는 연속적 의미를 지닌다는 순응의 정의에서 볼 때(Daley & Zuckoff, 1999), Primakoff 등(1986)이 제안한 방법은 순응의 개념에 보다 근접한 측정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Primakoff 등(1986)이 제안한 평정기준도 엄격한 근거에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다분히 인지행동치료에서의 숙제순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므로, 이를 보다 다양한 접근의 다양한 숙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기준에 숙제수행의 빈도, 숙제수행에 들인 시간의 양등을 평정의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강혜영(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대차대조표 만들기' 숙제의 순응도를 평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숙제의 양과 숙제수행에 들인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부록 2).

IV. 맺는 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상담과정과 상담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인지행동치료 접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임상실제에서는 절충적 접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임상가가 많으며(Jensen, Bergin, & Greaves, 1990; Norcross & Newman, 1992; Smith, 1982) 이들은 내담자의 문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강혜영·김계현, 2004;

Rosenthal, 2001; Williams, 2002). 이는 상담에서 숙제주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상담자의 느낌이나 순간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숙제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숙제주기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담에서 내담자들에게 숙제를 부여하면 수행해오는 내담자도 있고, 수행해오지 않는 내담자도 있는데, 내담자들이 숙제를 수행하는 것이 상담성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숙제 순응도와 상담성가 연구'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제수행이 상담성가에 영향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숙제수행에 관련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술적(치료과정)변인에 속하는 숙제부여방법이 숙제 수행 증가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숙제순응도 연구가 상담에 주는 시사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숙제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숙제부여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문서양식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관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타당성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 특성, 숙제 주는 상황(개인적 부여 대 집단적 부여) 등을 고려한 추후연구를 통해 타당성 제시방법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서양식 제시방법이 숙제순응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서양식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문서양식은 '지시의 명료성', '중요성에 대한 지각', '주의집중', '기억의 촉진', '수행시간 절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기능 중 어떤 것이 숙제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하는 것은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에서 숙제주기에 대한 상담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숙제의 타당성을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숙제의 유용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문서양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숙제의 유용성을 내담자 문제 및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문서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숙제순응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행동치료 접근에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숙제주기가 인지행동치료 이외의 접근을 취하는 많은 상담자역시 활용하는 기법이라면 숙제주기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한 상담접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연구자 및 실천가들이 상담에서의 숙제주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영(2005). 상담숙제 부여방법에 따른 숙제순응도의 차이.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강혜영, 김계현(2004). 상담기법으로서의 '숙제부여' 방법 활용 실태. *상담학연구*, 5(3), 519-532.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계현(1990). 단기상담. *학생연구*, 25(1), 98-114.
- _____(1993). 대학에서 단기상담의 적용. *인간이해*, 14, 11-21.
- 박기환(1999).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 효과 예언변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Emery, G.(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ryant, M. J., Simons, A. D., & Thase, M. E. (1999). Therapist skill and patient variables in homework compliance: controlling an uncontrolled variable in cognitive therapy outcome resear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4), 381-399.
- Bishop, R. M.(1990). *The effects of matching rationales on the acceptability of loneliness interven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Burns, D. D., & Nolen-Hoeksema, S. N.(1991). Coping styles, homework compli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305-311.
- Christopher, E. H., & Richard, T. K.(1998). Homework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0(2), 122-132.
- Conoley, C.W., Padula, M. A., Payton, D. S., & Daniels, J. A.(1994). Predictors of client implementation of counselor recommendations: match with problem, difficulty level, and building on client strength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3-7.
- Cormier, W. H., & Cormier, L. S.(1985). *Interviewing strategies for helpers: fundamental skills an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2nd)*. Belmont, California: Brooks/Cole.
- Cox, D. J., Tisdelle, D. A., & Culbert, J. P.(1988). Increasing adherence to behavioral homework assignm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1(5), 519-522.
- Daley, D. C., & Zuckoff, A.(1999). *Improving treatment compliance: Counseling and systems strategies for substance abuse and dual disorders*. Center City, MN: Hazelden.

- Edelman, R. E., & Chambless, D. L.(1993). Compliance during sessions and homework in exposure-based treatment of agora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767-773.
- Edelman, R. E., & Chambless, D. L.(1995). Adherence during sessions and homework in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573-577.
- Engle, D., Beutler, L. E., & Daldrup, R. J.(1991). Focused expressive psychotherapy: treating blocked emotions. In J. D. Safran & L. S. Greenberg(Eds), *Emotion, psychotherapy, and change*(pp. 169-196). New York: Guilford Press.
- Garland, A., & Scott, J.(2002). Using homework in therapy for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5), 489-498.
- Girodo, M., & Wood, D.(1979). Talking yourself out of pain: The importance of believing that you ca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22-33.
- Goldfried, M. R., & Davison, G. C.(1976). *Clinical behavior therap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are-Mustin, R. T., & Tushup, R.(1977). Maintaining a sense of contact with the patient during therapist abs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531-534.
- Haynes, R. B.(1979). Improving patient compliance. An empirical view. In R. B. Stuart(Ed.), *Adherence, compliance and generalization in behavioral medicine*(pp. 56-78). New York: Brunner/Mazel.
- Hope, D. A., Herbert, J. D., & Bellack, A. S.(1991). *Social phobia subtype,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therapy outcom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York.
- Jacobson, N. S., & Margolin, G.(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Jensen, J. P., Bergin, A. E., & Greaves, D. W.(1990). The meaning of eclecticism: New survey and analysis of compon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 124-130.
- Kazantzis, N., Deane, F. P., & Ronan, K. R.(2000). Homework assignment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189-202.
- Kazantzis, N., & Lampropoulos, G. K.(2002). Reflecting on homework in psychotherapy: what can we conclude from research and exper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5), 577-585.
- Kirk, J.(1989). Cognitive-behavioral assessment. In K. Hawton, P. M. Salkovskis, J. Kirk, & D. M. Clark(Ed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psychiatric problems*(pp. 13-51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rnblith, S. J., Rehm, L. P., O'hara, M. W., & Lamparski, D. M.(1983). The contribution

- of self-reinforcement and behavioral assignments to the efficacy of self-control therapy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499-528.
- Laguna, L. B., Hope, D. A., & Herbert, J. D.(1994). *Homework compliance and improvement in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with social phobic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Santa Monica, CA.
- Lancaster, S. T.(1990). *Counseling homework: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client, and technologic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issippi.
- Leung, L. W., & Heimberger, R. G.(1996). Homework compliance, perception of control, and outcome of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423-432.
- Martens, B. K., & Witt, J. C.(1982). *The Intervention Rating Profile*. Copyrighted manuscript,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Martin, G. A., & Worthington, E. L., Jr.(1982). Behavioral homework. In M. Hersen, R. M. Eisler, & P. M. Miller(Eds.), *Progress in behavioral modification*(Vol. 13, 197-226).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er, D. L. & Kelley, M. L.(1994). The use of goal setting and contingency contracting for improving children's homewor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7, 73-84.
- Neimeyer, R., & Feixas, G.(1990). The role of homework and skill acquisition in the outcome of group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Behavior Therapy*, 21, 281-292.
- Neimeyer, R. A., Twentyman, C. T., & Prezant, D.(1985). Cognitive and interpersonal group therapies for depression: a progressive report. *The Cognitive Behaviorist*, 7, 21-22.
- Norcross, J. C., & Newman, C. F.(1992). Psychotherapy integration: Setting the context. In J. C. Norcross & M. R. Goldfried(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NY: Basic Books.
- Parrino, J. J.(1971). Effect of pre-therapy information on learning in psychotherap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7-24.
- Persons, J. B. & Burns, D. D.(1985). *Factors associated with dropout and outcome in a naturalistic study of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Evanston, IL.
- Persons, J. B., Burns, D. D., & Perloff, J. M.(1988). Predictors of dropout and outcome in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a private practice sett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6), 557-575.
- Primakoff, L., Epstein, N., & Covi, L.(1986). Homework compliance: an uncontrolled variable in cognitive therapy outcome research. *Behavior Therapy*, 17, 433-446.
- Rose, S. D.(1973). *Treating children in groups: A behavioral approa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osenthal, H. G.(ed.).(2001). *Favorite counseling and therapy homework assignments: leading therapists share their most creative strategies*. Ann Arbor, MI: Taylor & Francis.
- Shelton, J. L., & Ackerman, M. J.(1974). *Homework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Smith, D.(1982). Trend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37, 802-809.
- Suinn, R. M.(1990). *Anxiety management training: a behavior 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Williams, E. N.(2002). Therapist techniques. In G. S. Tryon(Eds.), *Counseling based on process research: applying what we know*(pp. 232-264) London: Allyn and Bacon.
- Wells, R. A.(1994). *Planned short-term treatment(2nd.)*. New York: Free Press.
- Worthington, E. L. Jr.(1986). Client compliance with homework directives during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2), 124-130.
- Yankura, J.(1986). *Effects of perceived therapist expertness, homework performance monitoring and level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on homework compliance*.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 Zimmerman, J. E.(1992). *The effects of matching rationales on intervention acceptability and impleme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논문접수 2005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05년 8월 26일 / 2차 심사 2005년 9월 2일

* 강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교육상담전공)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대우교수로 있으며 주 관심분야는 진로 및 직업상담, 학업상담이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상담숙제 부여방법에 따른 숙제순응도의 차이」, 「상담기법으로서의 숙제부여방법 활용실태」,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분석: 진로탐색 및 취업면접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 e-mail: hy97kang@kut.ac.kr

* 이재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 관심분야는 학교상담, 청소년상담이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청소년 탈 비행 과정에서 부모의 지각, 대처행동, 부모-청소년의 상호작용의 변화」,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실제와 연구」, 「청소년 대인관계 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 e-mail: jjklee@nate.com

<부록 1>

- 1점 - 부여된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
- 2점 - 부여된 숙제를 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능력 부족 또는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황적인 이유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3점 - 부여된 숙제와 다른 것을 하였으나 그것이 인지치료나 환자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예: 자신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친구나 애인이 이러한 생각을 반박했던 경험이 있으면 적어오라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이 대신 자기가 현재 데이트 중인 두 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매력에 대해 물어보았다)
- 4점 - 부여받은 숙제의 일정 부분을 한 경우(25%, 50%, 75%)
- 5점 - 부여받은 숙제를 한 경우
- 6점 - 부여된 숙제 이상을 한 경우

<부록 2>

- 1점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숙제에 들인 시간이 '전혀없다'고 응답한 경우
- 2점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숙제에 들인 시간이 '전혀없다'고 응답했으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황이 있었을 때 예) 부상이나 입원등 신체상의 이유
- 3점 -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숙제에 들인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 4점 - 숙제를 했지만 가져오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자신이 한 것을 질문지에 기록한 경우
- 5점 - 숙제를 제출하였고, 비교항목이 1~3개인 경우
- 6점 - 숙제를 제출하였고, 비교항목이 4~6개인 경우
- 7점 - 숙제를 제출하였고, 비교항목이 7~9개인 경우
- 8점 - 숙제를 제출하였고, 비교항목이 10~12개인 경우
- 9점 - 숙제를 제출하였고, 비교항목이 13~15개인 경우
- 10점 - 제시된 숙제 이상의 것을 스스로 해 온 경우

Abstract

Research Trend and Task of Homework Compliance in Counseling

Kang, Hye-Young* · Lee, Jae-Kyu**

The use of homework assignment as a counseling technique is frequently observed in counseling practices because of advantages in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Homework compliance is a prerequisite for using homework effectively in counseling, thu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had attention to it. But it is rare to find studies that investigate homework compliance in Korea, although homework compliance research have the important implications in counseling practice. The present study is conducted to survey researches on homework compliance and to stimulate future studies. This research has three questions. First, does the homework compliance affect counseling outcome? We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homework compliance is very important factor to affect counseling outcome by a survey on 'homework compliance and counseling outcome' research. Second, what are relevant variables on homework compliance? Through a review on preceding studies, these are divided client variable, counselor variable, technical(therapeutic process) variable. Especially, methods of homework assignment among technical(therapeutic process) variable is very important factor to improve homework compliance. Lastly, on the basis of review,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presented.

Key words: Homework compliance, Counseling homework, Counseling technique.

*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